

# 벤투號 2기, 오늘 발표...새 얼굴은?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의 시선을 사로잡은 새 얼굴은 누구일까. 벤투號 2기가 다음달 1일 공개된다.

벤투 감독은 10월1일 오후 2시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우루과이(12일), 파나마(16일)와의 10월 축구 국가대표 A매치 2연전에 나설 선수 명단을 발표한다.

이달 코스타리카, 칠레와의 2연전을 통해 사령탑 데뷔전을 치른 벤투 감독은 그동안 직접 발로 뛰며 후보들을 확인했다.

9월 A매치에서는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과 본선에 나선 선수들을 중심으로 대한축구협회 기술파트의 조언을 일부분 반영해 팀을 꾸렸다. 이번에는 벤투 감독이 구상하고

향후 선보일 색깔을 확인할 수 있는 구성이 예상된다.

그는 "23명이 될지, 24명 혹은 25명이 될지 모르지만 선수 선발에 대한 마지막 권한은 내가 갖는다. 많은 경기를 보고 분석하고 결정할 것이다"고 했다.

벤투 감독은 지난 15일 K리그(1부리그) 인천 유나이티드-수원 삼성, 16일 강원FC-상주 상무의 경기를 관전했고, 19일에는 수원과 전북 현대의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을 봤다.

기존 선수들을 살펴보는 것을 기본으로 새로운 후보들을 두루 지켜본 것이다.

혹사 논란이 있었던 송흥민(토트넘)은 11월에 합류할 수 없는 만큼

12일 우루과이 · 16일 파나마 A매치 평가전  
“선발, 기술 당면...대표팀 열망 · 간절함 중요”

승선이 유력하다. 소속팀 토트넘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차출에 응하는 조건으로 11월 A매치에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축구협회가 받아들였다.

기성용(뉴캐슬 유나이티드), 황의조(갑바 오사카), 황희찬(함부르크), 이재성(홀슈타인 킬) 등 주축들은 무난히 2기에도 승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격라인에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지동원(이우크스부르크)이 골 세리머니 도중 무릎을 다쳤다. 10월 출전은 어렵다.

새롭게 독일 분데스리가에 터를 잡은 베테랑 이정용(보훤)의 복귀 여부도 관심사다. 이정용은 러시아 월드컵 최종엔트리에서 탈락했지만 이후 새 팀에서 새롭게 출발했다.

수비에서는 부상을 떨치고 돌아온 박주호(울산)가 눈에 띈다. 박주호는 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다쳤다. 지난달 26일 K리그를 통해 복귀했다. 아직 경기 감각이 완전히 없지만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꼭 점검해야 할 후보 중 하나로 꼽힌다.

장신 공격수 김신욱(전북), 베테랑 염기훈(수원)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상으로 9월 A매치에 나서지 않았던 골키퍼 조현우(대구)는 복귀가 유력하다.

이밖에 이강인(발렌시아), 백승호(지로나FC) 등 유럽에서 활약 중인 어린 선수를 간접 발탁할지도 관심사다.

벤투 감독은 선발 기준에 대해 "당연히 기술이 있어야 하고 대표팀에 대한 열망과 간절함이 중요한 요소"라며 "(10월 명단에서) 일부 비활 수 있지만 팀을 운영하고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했다.

한편, 1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상대할 우루과이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위의 강호다.

루이스 수아레스(FC바르셀로나), 에든손 카바니(파리 생제르맹)와 수비의 핵 디에고 고딘(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주축들이 대거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해 축구팬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10월1일 오전 9시부터 KEB하나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티켓 판매를 시작한다. 오후 2시부터는 인터파크를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가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727일 만에 선발 출전, 6회초 안타를 때려내고 있다.

## 강정호, 727일만에 빅리그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피츠버그와 재계약 가능성 ↑

우여곡절 끝에 빅리그에 복귀한 강정호(31·피츠버그 파이리츠)가 2년 여 만에 선발 출전해 안타를 생산했다.

강정호는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5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스텝 시스템을 통해 피츠버그와 계약기간 4+1년, 총액 1650만달러에 계약했다. 올해가 보장 계약의 마지막 해고, 내년에는 연봉 500만달러의 구단 옵션이 걸려있다.

이런 이유로 강정호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싶어했던 피츠버그 구단은 올 시즌 메이저리그 마지막 3연전에 강정호를 투입했다.

피츠버그로서는 바이아웃 금액 25만 달러를 주고 강정호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뒤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다.

2회초 첫 타석에서 3루 땅볼로 물러난 강정호는 4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삼진으로 돌아섰다.

강정호의 방망이는 6회초 날카롭게 돌아갔다.

피츠버그는 6회초 조시 벨의 볼넷과 코리 디커슨의 안타로 2사 1, 2루의 찬스를 일켰다.

뒤이어 타석에 들어선 강정호는 상대 선발 마이클 로렌젠의 시속 93마일(약 150km)짜리 초구 투심 패스트볼을 밀어쳐 우전 안타를 날렸다. 타구 속도가 빨라 2루 주자가 홈까지 들어오지 못해 복귀 첫 타점을 올리지는 못했다.

로렌젠을 마운드에서 끌어내리는 안타였다.

9회초 선두타자로 나선 강정호는 또다시 3루 땅볼을 쳐 안타를 추가하지 못했다.

피츠버그는 산발 6안타에 그쳐 신시내티에 0-3으로 졌다.

## LA 다저스, 6년 연속 가을야구 진출 확정 NL 와일드카드 확보

LA 다저스가 6년 연속 메이저리그(MLB)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했다.

다저스는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AT&T 파크에서 열린 2018 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10-6으로 승리했다.

시즌 90승(71패) 고지를 밟은 다저스는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양 리그당 2장씩 주어지는 와일드카드를 거머쥐었다.

2013년부터 6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이다. 6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은 1991~2006년 14시즌 연속 포스트시즌에 나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1995~2007년 13년 연속 가을야구 무대에 진출한 뉴욕 양키스에 이어 역대 3위 기록이다.

## 순천시청 정구부, AG이어 와타큐컵 국제정구대회 휩쓸어



순천시청 소속 정구부(감독 김태성) 선수들이 최근 3일간 열린 '2018 와타큐컵 국제정구대회-폴란드 오픈'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메달을 휩쓸었다.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2관왕을 한 김동훈선수는 개인단식 1위, 개인복식 1위의 성적으로 이번 대회에서도 2관왕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다.

이 외에도 순천시청 소속 박상민(수오른쪽)이 개인단식 3위에 입상해 기량을 보여줬으며, 정근영(왼쪽)은 개인복식에서 김동훈선수(가운데)와 호흡을 맞춰 1위에 올랐다.

개인단식·개인복식 두 종목 모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한 순천시청 정구부 선수들이 우승하며 아시안게임 이후 또 한번의 쾌거를 이루었다.

순천시 스포츠산업과 양진길 과장은 "국제대회에서 순천시 선수들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얼마 남지 않은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 순천시청 직장운동부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음주 운전 사고와 과거 음주 운전 경력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비자 발급을 거부받은 강정호는 2017시즌을 통째로 날렸고, 올해 4월 비자를 발급받아 실전 복귀를 노렸다.

싱글A와 트리플A를 거쳐 빅리그 복귀를 준비하던 강정호는 6월 20일 트리플A 경기 도중 왼 손목을 다쳐 8월 4일 수술을 받았다. 예상보다 이렇게 회복해 재활에 속도를 낸 강정호는 결국 시즌 막판 빅리그 무대에 서게 됐다.

강정호가 빅리그 경기에 선발 출전한 것은 2016년 10월 3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 이후 727일 만이다.

전날 신시내티전에서 대타로 빅리그에 복귀해 안타를 뽑아낸 강정호는 2경기 연속 안타를 때려내며 피츠버그와 재계약 가능성을 높였다.

강정호는 2014시즌을 마치고 포

지역광고·이메일·정본지침: 062-224-5800  
湖南新聞: 062-222-5548

■ 숲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신정,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칠성미골, 화연사, 설진강, 운조루, 패야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물어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